Issue Report

Vol. 2016-지역이슈-13 (2016. 12. 12)

해외경제연구소

OPEC의 산유량 감축 합의에 따른 GCC 6개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Ⅰ. 저유가 추세의 배경과 OPEC의 감산 합의 ····· 1

Ⅱ. GCC 6개국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10

Ⅲ. GCC 6개국의 최근 프로젝트 동향 ····· 19

Ⅳ. 시사점 및 대응 ····· 22

확인 : 소 장 권우석 (3779-5701)
wskwon@koreaexim.go.kr

작성 :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조사역 조재동 (6255-5727)
jjd8948@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Ⅰ. 저유가 추세의 배경과 OPEC의 감산 합의

1. 세계 경기침체와 산유국 간 생산 경쟁이 저유가 추세 초래

□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 추세 지속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었음.

—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일일종가 기준 2012년 3월 16일 123.51달러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6년 1월 22일 25.56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음.

○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최대 원유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 등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이 저유가 추세 지속의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음.

<그림 1> 최근 5년간 두바이유 가격 추이: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일일종가 기준

단위: 달러/배럴

자료: NYMEX (2016.11.30자)

○ 원유시장 주도권의 장악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동결·감축 거부, 2016년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이란의 산유량 증대 등 주요 산유국들 간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산유량 경쟁 또한 저유가 추세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음.

□ 5월 이후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 요인에 의한 생산 감소가 원인

○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4월 말 이후 배럴당 40달러대를 회복하여 5월 중순 이후 대체로 44~45달러대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이는 이슬람 테러조직 Boko Haram의 나이지리아 송유관 파괴, 대규모 산불로 인한 캐나다의 오일샌드 생산 차질, 쿠웨이트 국영석유기업 노조 파업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음.

○ 오히려 OPEC 회원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필두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산유량 증대 경쟁을 계속해 왔으며, 러시아 등 비회원국들 역시 증산을 계속하였음.

— OPEC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베네수엘라, 카타르,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지난 2월 산유량의 동결에 원론적으로 합의하였으나 4월 및 6월의 회의에서 생산량 상한선 설정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원유시장 장악을 위한 치킨 게임에 실패

○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4년 11월 원유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음.

— 이는 당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의 국제 원유시장에서 치킨게임을 강행하여 유가 폭락을 야기, 고비용 생산자들(특히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시장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음.

○ 이 방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내의 증산을 주도하였으나, 유가 폭락으로 재정수입이 급감하며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2012년 12.0% 흑자에서 2014년 -3.4% 적자로 전환한 뒤 2015년에는 -16.3%로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2016년에도 -1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감소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난 8월 말 외환보유고는 2014년 8월 말 대비 1,791억 달러(24.5%), 2015년 8월 말 대비 976억 달러(15.0%) 감소한 5,521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 결국 원유시장 장악을 위한 치킨 게임에 실패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재정 개선을 위해 연료, 전력, 상하수도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 정부사업 취소 등을 단행하였으며, 9월 26일에는 공무원 상여금 지급 취소 및 장관 월급 20% 삭감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2. 산유국 간의 산유량 증대 경쟁으로 유가하락 가속화

□ OPEC 회원국들, 금년 10월 중 일일 산유량 사상 최대치 기록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Oil Market Report 2016년 11월호에 의하면, OPEC의 10월 중 일일 평균 산유량[1]은 전월대비 23만 배럴, 전년동월 대비 130만 배럴 증가한 3,383만 배럴[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이는 9월의 알제리 비공식회의에서 OPEC 회원국들이 잠정 합의한 최대 상한선인 3,300만 배럴을 83만 배럴 초과하는 수준으로, ①이라크의 일일 산유량이 사상 최대치(446만 배럴)를 기록하고 ②나이지리아가 송유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③리비아가 원유수출용 항만을 재개통한 데 기인함.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앙골라의 산유량은 전월대비 총 25만 배럴 감소하였으나, 이라크, 나이지리아, 리비아의 산유량이 전월대비 43만 배럴 증가하였음. OPEC에 의하면 원유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올 상반기 기준 3,190만 배럴임.

— 한편, 이란의 일일평균 산유량은 2016년 1분기 315만 배럴, 2분기 359만 배럴, 3분기 366만 배럴에 이어 10월에는 372만 배럴로 계속 증가하였음. 이란은 시장점유율이 서방의 경제제재 이전 수준으로 확실히 회복되기 전까지 산유량을 계속 늘릴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9월 말의 감산 합의 발표 후 일일평균 산유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산유량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국가별 감산규모 산정시 유리한 위치의 점유를 도모한 자국 이기주의의 결과임.

○ 한편, OPEC 비회원국들의 10월 중 일일 평균 산유량은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전월대비 28만 배럴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63만 배럴 증가한 5,211만 배럴[3](전 세계 산유량의 34.6%)을 기록하였음.

— 이로써 10월 중 전 세계 일일 평균 원유공급은 전월대비 86만 배럴 증가한 8,594만 배럴[4]로 집계됨.

1) 콘덴세이트, 셰일오일, 바이오연료(biofuel) 등을 제외한 수치임. 이하 동일함.

2) 콘덴세이트, 셰일오일, 바이오연료 등 포함시 전월대비 27만 배럴 증가한 4,081만 배럴로 집계됨.

3) 콘덴세이트, 셰일오일, 바이오연료 등 포함시 전월대비 49만 배럴 증가한 5,704만 배럴로 집계됨.

4) 콘덴세이트, 셰일오일, 바이오연료 등 포함시 전월대비 75만 배럴 증가한 9,784만 배럴로 집계됨.

<표 1> 2016. 1~10월 세계 산유국들의 일일 평균 산유량 추이

1) 전체 산유국

단위: 만 배럴/일

국 명	2015년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OPEC 회원국	3,232	3,276	3,307	3,351	3,383
OPEC 비회원국	5,306	5,288	5,136	5,167	5,211
(러시아)	(1,106)	(1,124)	(1,118)	(1,124)	(1,154)
(오 만)	(99)	(101)	(101)	(102)	(102)
총 합계	**8,538**	**8,564**	**8,443**	**8,518**	**8,594**

2) OPEC 회원국

단위: 만 배럴

지 역	국 명	2015년	2016년			
			1분기	2분기	3분기	10월
중동/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1,017	1,021	1,033	1,062	1,055
	이라크	402	428	431	442	459
	이 란	286	315	359	366	372
	아랍에미리트	290	281	298	309	308
	쿠웨이트	279	283	282	289	293
	알제리	111	110	109	112	112
	카타르	66	66	66	65	62
	리비아	40	36	32	31	51
중동/북아프리카 소계		**2,490**	**2,540**	**2,610**	**2,676**	**2,71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앙골라	176	177	174	174	152
	나이지리아	180	176	150	137	157
	가 봉	23	22	22	21	20
중남미	베네수엘라	240	234	223	214	212
	에콰도르	54	54	55	55	56
아시아	인도네시아	69	71	74	74	74
총 합계		**3,232**	**3,276**	**3,307**	**3,351**	**3,383**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il Market Report, November 2016.

3.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 : 원유 생산·수출 경쟁의 양대 축

□ 사우디아라비아 :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산유량 증대

○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석유 담당 장관의 전격 교체 등을 통해 석유 권력을 왕실로 넘기면서 증산 입장을 고수해 왔음.

— Salman 국왕은 석유정책의 구상 및 추진 권한을 기존의 석유위원회에서 경제개발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장에 장남이자 부왕세자인 Muhammad bin Salman 왕자(국방장관 겸임)를 임명하였음.

— 5월 7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석유부가 폐지되면서 21년 간 재직해온 Ali al-Naimi 석유장관이 퇴진하고, 석유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신설되어 그 장관으로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의 측근이자 왕족 혈통인 Khalid al-Falih 보건장관이 취임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책 담당 장관은 전통적으로 왕족 출신이 아닌 전문 관료들이 역임했으나,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al-Falih의 석유정책 담당 장관 임명을 통해 석유 부문에 대한 왕실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4월 개최된 산유량 동결협상에서 숙적인 이란의 시장점유율 회복을 저지코자, 이란이 참여하지 않는 동결 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을 무산시켰음.

○ 5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CEO인 Amin H. Nasser는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극대화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증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Aramco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약 1,000만 배럴로, 2016년 3분기 기준 세계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의 약 12%에 해당됨.

□ 이란 : 당분간 원유의 생산 및 수출 증대 계획

○ IEA의 Oil Market Report 2016년 11월호에 따르면 이란의 10월 중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은 2015년 대비 86만 배럴(30.1%) 증가한 372만 배럴로, 핵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이전인 2011년 11월의 수준에 도달한 바 있음.

— 이란국영석유회사(NIOC)는 10월 이란의 일일 평균 원유수출량이 244만 배럴 이상이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란은 금번 합의 전까지 자국의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을 현재보다 100만 배럴 더 많은 500만 배럴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음.

— 11월 13일 이란 남서부 Khuzestan 주의 West Karun 유전 개발 프로젝트 준공으로 동 유전의 일일 평균 산유량이 3년 전의 5만 배럴에서 30만 배럴로 증가하였으며, 준공식에 참석한 Hassan Rouhani 대통령은 동 유전의 일일 평균 산유량을 100만 배럴까지 늘릴 것이라고 천명하였음.

4. OPEC 회원국들, 11월 30일 공식회의에서 감산에 최종 합의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전격 합의

○ 저유가 추세의 지속으로 회원국들의 경제에도 위험신호가 나타나자, OPEC은 11월 30일(이하 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공식 회의에서 OPEC의 일일 원유 총생산량 상한을 금년 10월 생산량 대비 약 120만 배럴[5] 감축한 3,250만 배럴로 정하는 감산에 전격 합의하였음.

— 금번 합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PEC의 첫 감산 합의임. OPEC 회원국들은 앞서 9월 28일 알제리에서의 비공식 회의 결과 감산 자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음.

○ OPEC의 금번 합의는 6개월간 유효하며, 차기 총회에서 시장상황 및 전망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6개월 연장 가능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양보로 이란의 산유량 쿼타 상향 조정

○ OPEC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최대 라이벌인 이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당초 합의가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였으나,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양보하여 이란의 일일 산유량 상한선을 390만 배럴로 정하는 데 동의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회원국들이 감산의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잠정 합의 당시에도 오랜 경제제재로 인한 시장점유율 손실의 만회를 위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한편,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는 각각 내전과 Boko Haram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원유생산 차질을 이유로 감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용을 받았음.

○ 반면 IS(이슬람국가)의 침공에 따른 내전 지속으로 역시 원유생산에 차질을 빚어온 이라크는 전쟁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감산 예외적용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감산에 동참키로 결정하였음.

— OPEC 회원국이면서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저유가 지속을 바라는 인도네시아는 감산 합의에 반대한 끝에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음.

5) 현재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 수준임.

□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감산량의 약 42%를 부담

○ OPEC 회원국들은 금년 10월 생산량* 대비 4.5% 감산에 합의하였음. 이중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은 약 42%임.

* 단, 10월 중 전월대비 약 10% 감소한 앙골라는 9월 기준

○ 감산 기준 일일 총생산량 산정에는 감산대상 예외국(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과 회원 자격 정지국(인도네시아)의 생산량도 포함됨.

<표 2> 금번 합의에 따른 OPEC 회원국별 감산 세부내역

단위: 천 배럴/일

OPEC 회원국	감산규모 산정기준 산유량	산유량 상한선 증감분	2017.1.1자로 적용되는 상한선	비 고
사우디아라비아	10,544	−486	10,058	GCC 회원국
이라크	4,561	−210	4,351	
아랍에미리트	3,013	−139	2,874	GCC 회원국
쿠웨이트	2,838	−131	2,707	GCC 회원국
베네수엘라	2,067	−95	1,972	
앙골라	1,751	−78	1,673	
알제리	1,089	−50	1,039	
카타르	648	−30	618	GCC 회원국
에콰도르	548	−26	522	
가 봉	202	−9	193	
이 란	*3,707*[1)]	*90*	*3,797*	*감산 예외적용*
나이지리아	*(1,628)*[2)]	*–*	*(…)*	*감산 예외적용*
인도네시아	*(722)*[2)]	*–*	*(…)*	*감산 예외적용*
리비아	*(528)*[2)]	*–*	*(…)*	*감산 예외적용*
총 합계		−1,164	32,500	

1) OPEC 보도자료상 3,975천 배럴이나 이는 오류로 보임.
2) OPEC 보도자료상 수치가 표시되지 않아 10월 생산량 보고치를 추가 기재함.

□ 모니터링 위원회 신설 및 차기 총회 예정

○ OPEC은 금번 합의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해 알제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및 2개 OPEC 비회원국들(러시아, 오만)로 구성된 장관급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하고, 쿠웨이트가 의장직을 맡기로 결정하였음.

○ 아울러 OPEC은 차기 정기총회를 2017년 5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앙골라의 Estevao Pedro, 교체의장으로 에콰도르의 Wilson Pasteor Morris를 선임하였음.

□ OPEC 합의 발표로 국제유가 급등, 내년 중 60달러 달성 전망

○ NYMEX(뉴욕상업거래소)의 11월 30일 종가 기준 내년 1월 인도분 가격은 서부텍사스유(WTI)가 전일대비 9.3% 상승한 49.44달러, 브렌트유가 전일대비 8.1% 상승한 50.47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두바이유는 12월 1일 종가 기준 전일대비 15.9% 상승한 50.85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후 12월 5일에는 서부텍사스유 51.79달러, 브렌트유 54.94달러 및 두바이유 51.50달러로 모두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였음.

○ 분석가들은 금번 합의에 따라 국제유가가 단기적 상승 후 내년 중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5. OPEC 비회원국들, 12월 10일 공식회의에서 감산 동참에 합의

□ 2011년 이후 처음으로 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공동 감산 합의

○ 러시아 등 11개 OPEC 비회원 산유국은 12월 1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을 55.8만 배럴 감축키로 합의했다고 OPEC과 러시아 정부 등이 발표하였음.

— OPEC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원유생산량 감축에 합의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임.

○ OPEC 비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가 감산분의 절반 가량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짐.

— 금번 감산에 합의한 비회원국들은 러시아, 멕시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오만,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적도기니, 수단, 남수단, 브루나이 등임.

○ 금번 합의 역시 OPEC 회원국 간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효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

○ 일부 분석가들은 OPEC 비회원국들도 감산에 동참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내년 중 배럴당 60달러 중반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으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6. 미 대선 결과는 국제유가에 이중적 영향

□ 하락 압력 요인 : 신흥국의 원유수요 위축 가능성

○ 지난 11월의 선거를 통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미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①미 달러 강세 유지와 ②금리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는 신흥시장의 자금이탈로 인한 자본유출 증가, 신흥국 통화가치의 하락 및 그로 인한 미 달러 표시 부채의 상환부담 증가와 원유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신흥국의 원유수요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아울러 Donald Trump 미 대통령 당선자는 보호무역 정책의 추진을 공언하고 있으며, 이 역시 신흥국의 수출 감소 및 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원유수요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하락 압력 요인 : 미국의 산유량 증가 가능성

○ Trump 당선자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반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옹호하며, 에너지 산업에의 규제 완화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 규제 완화는 생산비용 감소로 이어져, 저유가와 고비용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고전해온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기업들이 산유량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물량 증가로 이어져 국제유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함.

○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의한 유가상승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는 또한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의 채산성 개선으로 이어져, 이들 기업들의 증산을 촉진하여 유가를 다시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됨.

□ 상승 압력 요인 : 미국의 대 이란 강경책 부활 가능성

○ Trump 당선자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강력히 비판해 왔으며, Trump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손잡고 이란의 원유 생산, 수출 등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됨.

○ 새로운 제재는 경제제재 해제 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국제유가에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Ⅱ. GCC 6개국[6]의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7]

1. 저유가 지속으로 산유국들의 경제상황 전반 악화

□ 대부분의 국가들이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저성장 전망

○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 전체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급격한 감소 및 그로 인한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 모두의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1.7%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는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 재조정, 보조금 감축 등의 조치로 인한 투자 및 소비의 위축, 석유수출 수입 감소에 따른 유동성 위축이 전망되는 와중에도 비석유 부문의 성장률 개선(2016년 1.4% → 2017년 3.1% 전망)과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한 2.3%로 전망됨.

— OPEC의 금번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효과가 산유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유 초과공급분 소진 등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과 산유국들의 경제성장률 상승 간에는 시차가 존재함.

— 카타르는 비석유 부문의 육성 노력, Al-Shaheen 유전의 신규 개발 등 자본투자에 힘입어 6개국 중 유일하게 내년에 3%대 초·중반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국의 Trump 행정부와 의회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시도하거나 대 이란 신규 제재 도입을 추진할 경우 이란의 석유 부문 투자유치와 원유수출에 차질을 빚고, 이는 유가상승 요인으로 GCC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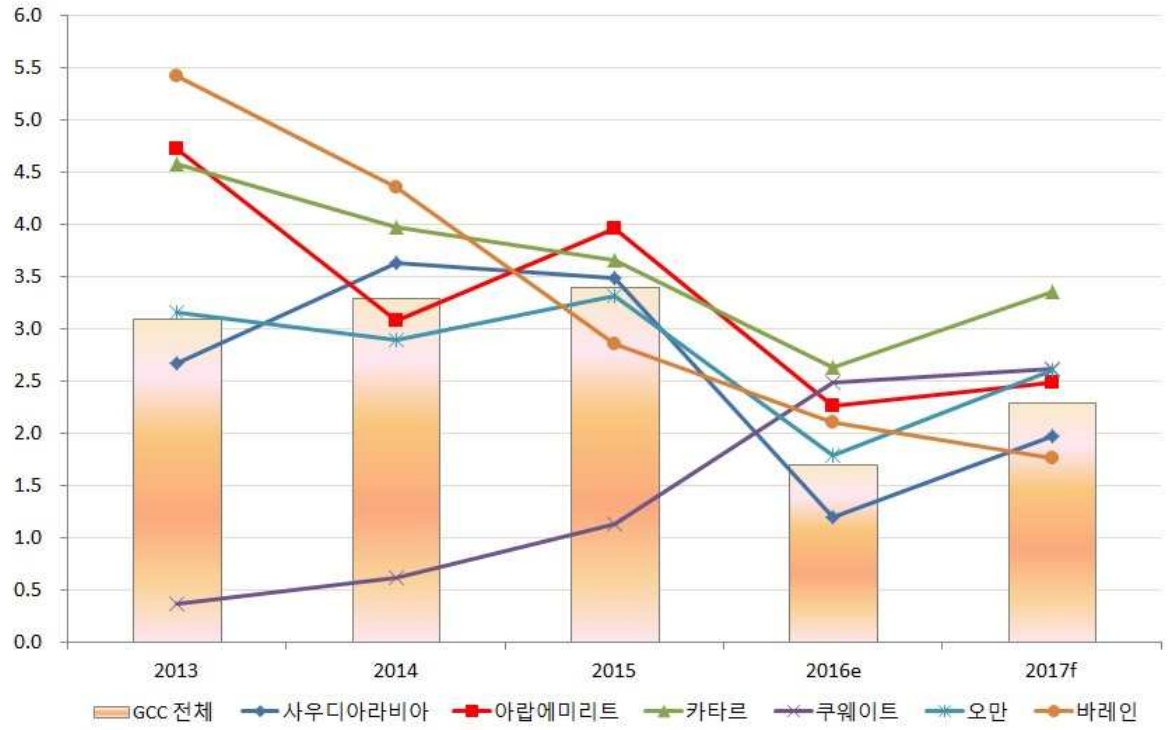
—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란 관계의 악화는 걸프 지역의 역내 불안정성 고조 및 그로 인한 역내 외국인투자 유치의 위축, 이란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등 GCC 회원국들의 경제에 대한 악영향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전망임.

6)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7) 동 전망에서 각국의 2017년 경제전망 추정치(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는 IMF의 Regional Economic Outlook(October 2016)상의 수치이며, 금번 OPEC의 감산 합의의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임.

<그림 2> GCC 회원국들의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GCC 전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 만	바레인
2017_f	2.3%	2.0%	2.5%	3.4%	2.6%	2.6%	1.8%
(2016_e)	(1.7%)	(1.2%)	(2.3%)	(2.6%)	(2.5%)	(1.8%)	(2.1%)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6

□ 국영 석유기업의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 GCC 회원국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영 석유기업의 석유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수출 단가 하락으로 2015년까지 카타르와 쿠웨이트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6개 회원국 중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유가 수준이 가장 낮아 (2015년 기준 카타르는 58.3달러, 쿠웨이트는 48.3달러)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16년에는 카타르와 쿠웨이트마저 적자로 전환하여 6개국 모두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GCC 회원국 전체의 재정수지/GDP 비율은 -9.8%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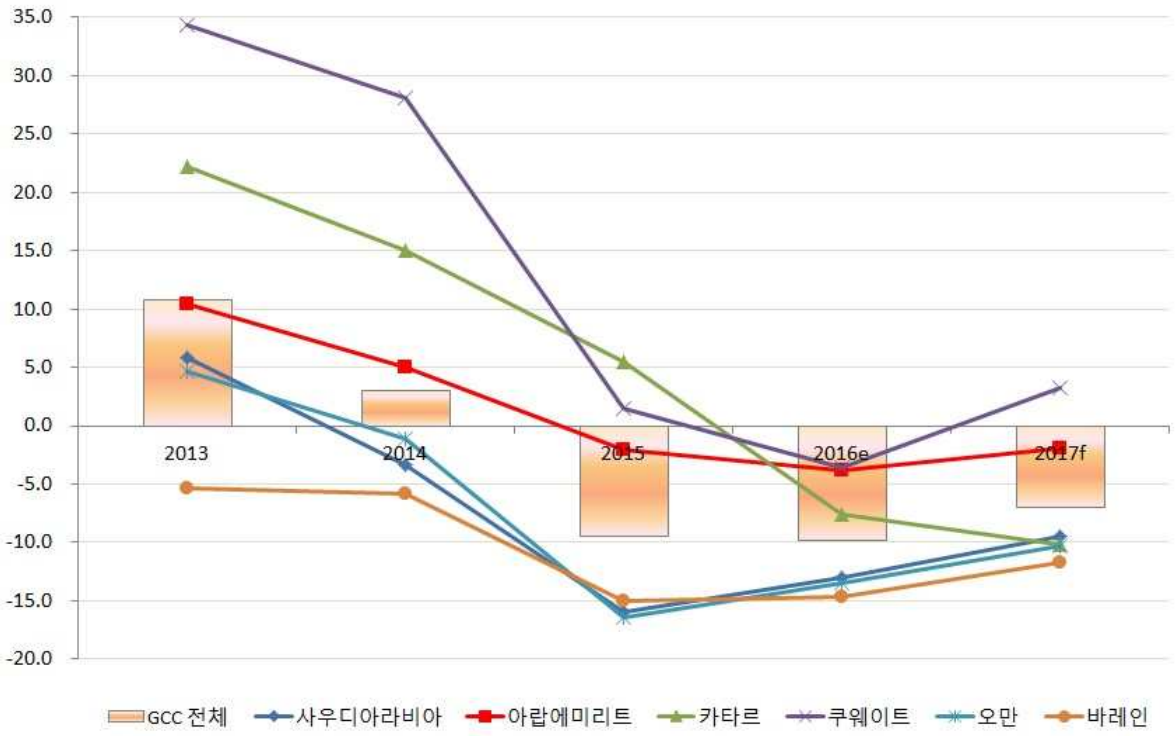
○ 2017년에도 6개국 중 쿠웨이트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은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보조금 삭감, 세제 개편, 정부 주도 프로젝트 재조정 등 재정개혁 노력에 따라 GCC 회원국 전체의 재정수지/GDP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유가수준이 여전히 중동 산유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쿠웨이트는 (2017년 47.7달러 전망) 2017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3.2%의 흑자를 기록하며 6개국 중 유일하게 흑자를 회복할 전망임. (<그림 5> 참조)

— 2020년 FIFA 월드컵 개최 준비 등과 관련된 재정지출이 지속되고 있는 카타르를 제외한 여타 4개국도 부가가치세 도입, 보조금 감축, 세수 확대 등의 재정개혁 조치를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GCC 회원국들의 최근 재정수지/GDP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재정수지/GDP	GCC 전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 만	바레인
2017_f	−6.9%	−9.5%	−1.9%	−10.1%	3.2%	−10.3%	−11.7%
(2016_e)	(−9.8%)	(−13.0%)	(−3.9%)	(−7.6%)	(−3.6%)	(−13.5%)	(−14.7%)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6

□ 상품수지 흑자 대폭 축소로 경상수지도 적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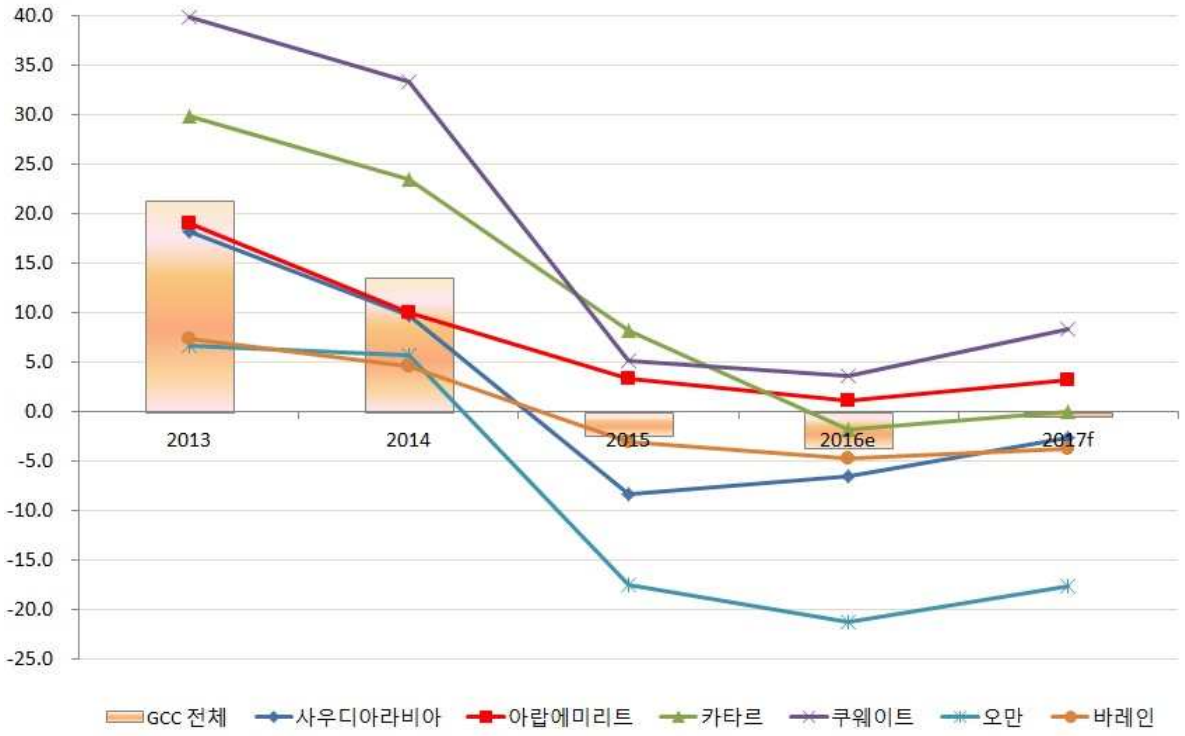
○ 2015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 감소세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이 적자 전환하였음. 2016년에는 카타르도 적자로 전환하여, GCC 회원국 전체의 경상수지/GDP 비율은 -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17년에는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세에 힘입어 카타르가 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개선되어 GCC 회원국 전체의 경상수지/GDP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0.5%를 기록할 전망임.

—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은 6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음. 산유국 경상적자의 핵심은 통상 원유 수출가격 하락 또는 원유수출량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에 있음.

<그림 4> GCC 회원국들의 최근 경상수지/GDP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경상수지/GDP	GCC 전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 만	바레인
2017_f	−0.5%	−2.6%	3.2%	0.0%	8.4%	−17.6%	−3.8%
(2016_e)	(−3.7%)	(−6.6%)	(1.1%)	(−1.8%)	(3.6%)	(−21.3%)	(−4.7%)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6

□ 국제신용평가사, GCC 회원국의 신용등급 강등 내지 부정적 전망

○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경상수지 악화, 부채비율 상승 및 부정적 성장 전망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을 1~2단계 강등하였음.

— Fitch는 1단계(AA → AA-, 4월), Moody's는 1단계(Aa3 → A1, 5월) 강등

○ Moody's는 5월에 오만(A3 → Baa1)과 바레인(Ba1 → Ba2)의 신용등급도 각각 강등하였음. 특히 바레인은 정크 등급인 Ba1으로 강등된 지 2개월 만에 1단계 추가 강등되었음.

—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용등급(3개국 모두 Aa2)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6월에 바레인(BBB- → BB+)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였음.

<표 3> 최근 GCC 회원국들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추이

국가명	평가사	국가신용등급 추이
사우디아라비아	Moody's	Aa3('10.2) → Aa3(negative, '16.3) → **A1(stable, '16.5)**
	Fitch	AA-('08.7) → AA('14.3) → **AA-(negative, '16.4)**
아랍에미리트	Moody's	Aa2('07.7) → Aa2(negative watch, '16.3) → **Aa2(negative, '16.5)**
	Fitch	[아부다비] **AA(stable, '07.7)**
카타르	Moody's	Aa2(stable, '07.7) → Aa2(negative watch, '16.3) → **Aa2(negative, '16.5)**
	Fitch	**AA(stable, '15.3)**
쿠웨이트	Moody's	Aa2(stable, '10.8) → Aa2(negative watch, '16.4) → **Aa2(negative, '16.5)**
	Fitch	AA-(stable, '02.6) → AA(stable, '08.9) → **AA(stable, '11.11)**
오 만	Moody's	A1(negative, 2015.2) → A3(negative watch, 2016.2) → **Baa1(stable, 2016.3)**
	Fitch	[평가대상국이 아님]
바레인	Moody's	Baa3(negative, '15.4) → Ba1(negative watch, '16.3) → **Ba2(negative, '16.5)**
	Fitch	BBB-(stable, '15.6) → BBB-(negative, '15.12) → **BB+(negative, '16.6)**

2. 재정수지 개선 및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지출 감축 추진 및 미 달러 표시 국채 발행

○ 2015년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석유수출 수입에 의존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보조금 개혁 등을 통한 재정지출 감축과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12월 가솔린, 경유,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2016년 5월 유휴토지에 대하여 매년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토지보유세 부과(2016년 11월부터 적용) 계획을 발표하였음.

— 한편 공무원 급여 삭감,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연기,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재정지출 감축 및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아울러 국영 석유기업 Aramco의 지분 5%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민영화 과정에 따른 국영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재정적자를 보충할 계획임. 다만, Aramco의 상장 계획에 유전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고 전체 지분의 5%를 매각하는 것에 그쳐 석유메이저들의 관심이 낮은 상태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보 및 균형재정 유지를 위해 지난 10월 20일 사상 최초로 미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하였음.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 속에 국제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발행총액은 당초 계획보다 25억 달러 증가한 175억 달러로 마감됨.

— 만기별 발행금액은 5년 만기 55억 달러, 10년 만기 55억 달러 및 30년 만기 65억 달러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이후에도 국채의 추가 발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Aramco의 증시 상장을 위한 IPO 등 정부기관 채권, 회사채 등의 발행이 지속될 전망임.

— 2015년 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대비 1,780억 달러 감소하여 MENA 국가들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4년 내로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있음.

□ 여타 회원국들도 보조금 감축, 세제개혁, 국채 발행 등 추진

1) 각종 보조금의 감축

○ GCC 6개국은 2014년 1,600억 달러의 에너지 보조금을 자국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GCC 국가 전체의 당해년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 보조금은 GCC 국가들에서 정치·사회적 안정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지급범위는 에너지는 물론 상수도, 식료품 등까지 포괄하고 있음.

○ 그러나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지 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외의 회원국들도 2015년부터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보조금 폐지/삭감을 추진 중이며, 이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① 아랍에미리트
— 연방 정부는 2015년 8월 유류가격을 국제가격에 연동시키는 시스템 도입 ⇨ 휘발유 가격 25% 인상 (반면 경유 가격은 29% 인하)
— 아부다비 토후국 정부는 2015년 1월 상수도 요금 170%, 전력요금 40% 인상 ⇨ 2016년 1월 상수도 요금 14%, 전력 요금 17% 추가 인상

② 카타르
— 2015년 10월 전력 및 상수도 요금 인상 (소비량에 연동되는 체계로 개편)
— 2016년 1월 보조금 폐지로 휘발유 가격 30% 인상 ⇨ 8월 4% 추가 인상

③ 쿠웨이트
— 2015년 1월 경유 가격을 2배로 인상
— 2016년 9월 휘발유 가격을 평균 70% 인상
— 2017년 5월부터 전력 및 상수도에 대한 보조금 삭감 예정

④ 오만
— 2015년 1월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을 2배로 인상
— 2016년 1월 연료보조금 삭감 ⇨ 경유, 휘발유 가격 33% 인상
— 2016년 3월 공공 부문, 상업용, 산업용 상수도 요금 인상

⑤ 바레인
— 2015년 4월 1일부터 산업용 천연가스의 가격을 2021년 4월까지 100만 BTU[8]당 매년 0.25달러씩 인상할 계획
— 2016년 1월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휘발유 가격을 약 60% 인상
— 경유·등유·LPG 가격과 전력·상수도 요금을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

8) British Termal Unit. 1기압 하에서 질량 1파운드(0.454kg)의 액체 상태의 물의 온도를 화씨 1도(섭씨 0.56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천연가스의 경우 대략 1,000ft^{3}에 해당됨.

2) 무세(無稅) 정책 포기 : 부가세 도입, 법인세율 인상 등

○ GCC 6개 회원국들은 2015년 12월 7일 부가가치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GCC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도입을 확정하였음. 부가가치세율은 잠정적으로 5%를 검토 중임.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2018년 1월부터, 바레인, 카타르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임. 쿠웨이트는 2018년 1월 도입과 2019년 1월 도입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늦어도 2019년 말까지는 GCC 6개국 모두 부가가치세 도입을 완료할 전망임.

○ 일부 회원국들은 법인세율의 인상 및 부과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며, 오만의 경우 2016년 5월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음.

— 오만 정부는 2016년 5월 법인세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고 (단, 석유·천연가스 기업에는 종전대로 55%의 세율 적용), 부과대상도 연 매출 3만 오만리얄(약 78,000달러)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전면 확대함.

3)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국채 발행 추진

○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4월 아부다비 정부가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여타 토후국 정부들과 연방 정부도 국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어 5월에 카타르가 90억 달러 규모, 6월에 오만이 2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음. 아울러 쿠웨이트가 2017년 중 국제시장에서 100억 달러, 국내시장에서 66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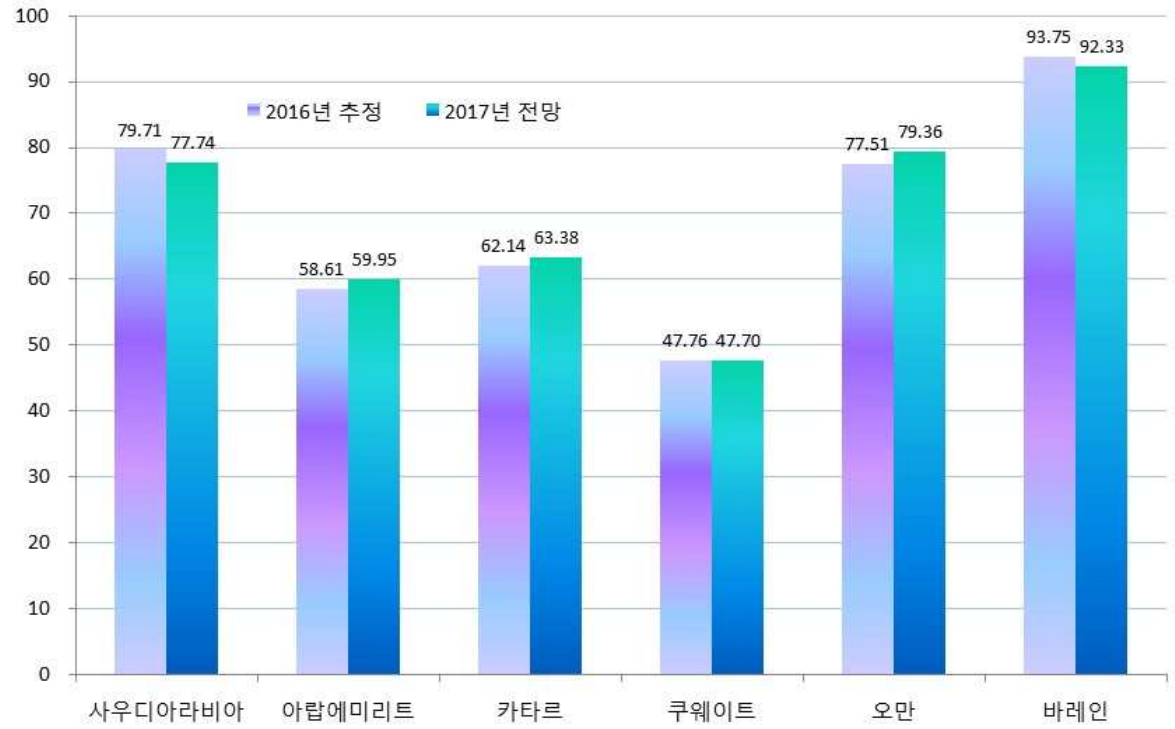
□ GCC 국가들의 안정적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배럴당 연평균 60달러대 중반의 유가수준 필요

○ IMF는 2016년 10월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재정정책 개편에 따라 동국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유가수준이 2015년 92.89달러에서 2016년 79.71달러, 2017년 77.74달러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한편, IMF는 동 보고서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유가수준을 바레인, 쿠웨이트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한 반면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였음.

<그림 5> GCC 회원국들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국제유가 수준 전망

단위: 달러/배럴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6

○ 다만, 2017년 유가가 평균 60달러대 중반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은 대폭적인 재정개혁 없이는 2017년에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개혁에는 각종 보조금의 축소와 대규모 프로젝트의 선별적 추진 등을 통한 정부지출 감축이 필수적임. 그러나 민심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온 보조금의 축소와 경제성장률 유지에 일익을 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검토는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GCC 각국의 국부펀드 운용 상황

○ GCC 6개국은 주로 원유·천연가스 수출 수입(收入)을 바탕으로 하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9]를 운용 중임.

— 일반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국부펀드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해당국의 외채상환위험이 완화되고, 따라서 재정부담도 간접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됨.

9) 국가가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 또는 상품 수출을 통한 재정흑자 등 외화잉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 운용하는 투자펀드 또는 투자기구로, 정부가 그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감독함.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원유 등 원자재 수출에서 발생하는 정부 수입을 기초재원으로 하는 상품 펀드(commodity fund), 원자재 수출과 무관하게 국제수지 흑자 등 외환보유고나 재정흑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비상품 펀드(non-commodity fund)로 구분됨.

○ UAE의 7개 국부펀드는 2016년 6월 기준 운용자산 총액(추정치) 1조 2,468억 달러로 역내 최대 규모임. 이중 아부다비투자청의 운용자산은 7,92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부펀드 중 5위 규모임.

○ 사우디아라비아가 7,584억 달러, 쿠웨이트가 5,920억 달러, 카타르가 3,35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각각 운용 중임. 반면 오만(407억 달러)과 바레인(106억 달러)의 국부펀드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표 4〉 GCC 6개국의 국부펀드 운용자산 규모 (2016년 6월 추정치)

단위: 억 달러

국가명	국부펀드명	운용자산 규모
아랍에미리트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920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1,960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1,100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663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663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150
	Ras Al Khaimah Investment Authority	12
	아랍에미리트 소계	**12,468**
사우디아라비아	SAMA Foreign Holdings	5,984
	Public Investment Fund	1,600
	사우디아라비아 소계	**7,584**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5,920
	쿠웨이트 소계	**5,920**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3,350
	카타르 소계	**3,350**
오 만	Oman Investment Fund	60
	State General Reserve Fund	340
	Tanmia	7
	오만 소계	**407**
바레인	Mumtalakat Holdings	106
	바레인 소계	**106**

자료: SWFI(www.swfinstitute.org) – 2016. 11. 23자 조회.

Ⅲ. GCC 6개국의 최근 프로젝트 동향

□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

○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프로젝트 전문지인 MEED의 집계에 따르면, 2016. 1~10월 중 GCC 6개국의 전체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 규모는 779.3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 이는 MEED가 금년 초 제시한 GCC 6개국의 2016년 중 프로젝트 계약 체결총액 전망치(1,401.5억 달러)의 5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프로젝트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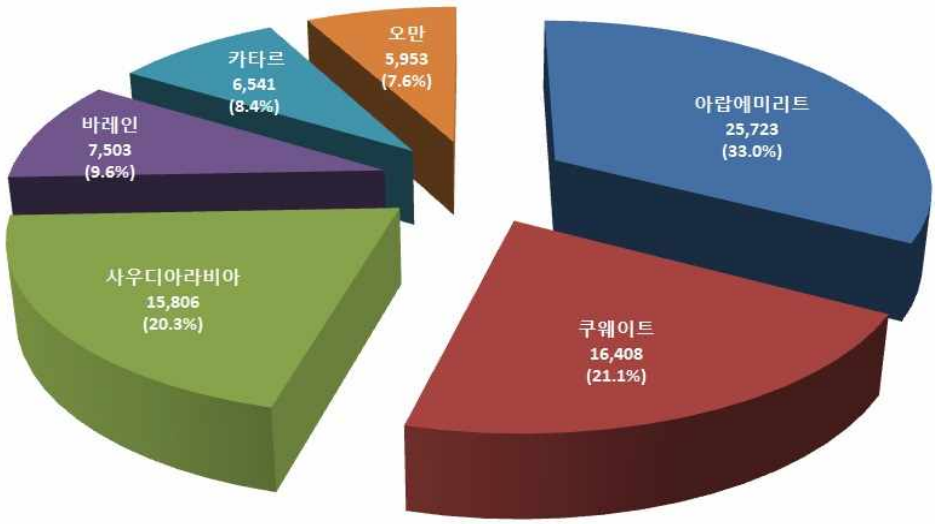
○ 국가별로는 UAE가 33.0%(257.2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쿠웨이트 21.1%(164.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20.3%(158.1억 달러), 바레인 9.6%(75.0억 달러), 카타르 8.4%(65.4억 달러), 오만 7.6%(59.5억 달러)의 순임.

— MEED의 연초 전망은 사우디아라비아 29.1%(407.6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26.1%(365.1억 달러), 쿠웨이트 17.4%(243.6억 달러), 카타르 15.9%(222.5억 달러), 오만 9.6%(134.5억 달러), 바레인 2.0%(28.1억 달러)임.

— 바레인은 2016년 4월 Alba 알루미늄 제련소 6단계 확장 공사 계약 체결(US$30억)로 10월 말까지의 누계액이 연초 전망의 267.0%에 달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10월 말까지의 누계액이 연초 전망의 38.8%에 불과함.

<그림 6> 2016. 1~10월 GCC 6개국의 국가별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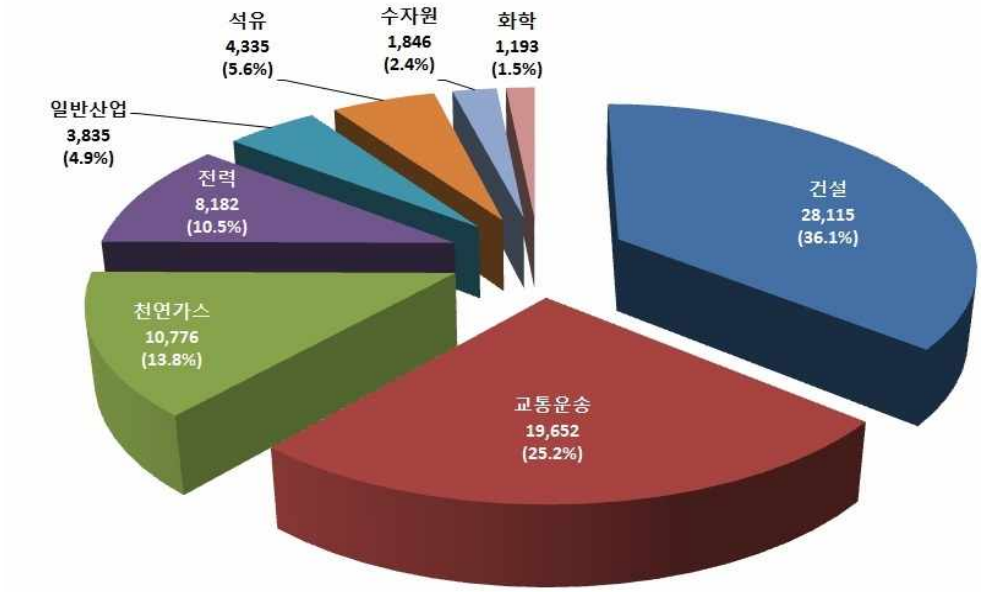
자료: MEED

□ 프로젝트 추진은 필수불가결한 부문으로 집중되는 추세

○ 2016. 1~10월 중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의 부문별 비중은 건설 36.1%(281.2억 달러), 교통운송 25.2%(196.5억 달러), 천연가스 13.8%(107.8억 달러), 전력 10.5%(81.8억 달러) 등의 순임. 석유는 저유가 지속의 여파로 인해 43.4억 달러(5.6%)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음.

<그림 7> 2016. 1~10월 GCC 6개국 전체의 부문별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EED

○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시장규모 상위 3개국(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이 전력 외의 일반 인프라를 포함한 건설 및 교통운송 부문에 주로 집중하고 있음.

<표 5> 2016. 1~10월 GCC 6개국의 국가별, 부문별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건설	교통 운송	천연 가스	전력	일반 산업	석유	수자원	화학	합계
아랍에미리트	13,200	8,163	335	1,293	651	1,245	836	–	25,723
쿠웨이트	5,656	5,460	3,524	352	–	893	523	–	16,408
사우디아라비아	5,510	153	5,562	2,076	69	1,032	211	1,193	15,806
바레인	768	1,725	454	1,511	3,000	–	45	–	7,503
카타르	2,232	3,644	–	–	–	540	125	–	6,541
오 만	749	507	901	2,950	115	625	1006	–	5,953
합 계	28,115	19,652	10,776	8,182	3,835	4,335	1,846	1,193	77,934

자료: MEED

○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선별적 추진 및 일정 재조정 등에 따라 GCC 회원국들의 프로젝트 추진은 당분간 주택과 기본 인프라 중심의 건설, 교통운송 및 전력 등 필수불가결한 부문에 집중되는 한편, 석유 부문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부진할 전망임.

Ⅳ. 시사점 및 대응

□ 향후 유가 동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 OPEC 회원국들은 내년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면 다시금 상당한 수준의 증산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OPEC 회원국들은 여러 차례 감산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따라서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준수 여부는 다소 회의적임.

□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갈등으로 감산 합의 이행 여부도 불확실

○ 사우디아라비아의 양보로 감산 합의에 성공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합의 전날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합의에 난항을 겪은 바 있음.

— 이란은 그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초 생산량보다 20만 배럴 증가한 일일 평균 397.5만 배럴 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음.

○ 2015년 12월에도 양국의 패권 다툼으로 감산 합의기 불발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금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Barclays는 OPEC 회원국들의 생산물량 상한은 감축하였으나 수출물량은 감축하지 않은 점, 이란의 감산물량이 애매모호한 점 등을 근거로, 금번 감산 합의의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하고 있음.

□ 공급과잉 지속 전망,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의 동향도 변수

○ 금번 합의된 OPEC의 일일 평균 생산량 3,250만 배럴은 OPEC의 전년 생산량 한도(3,000만 배럴)보다 8.3% 많은 규모로, 현재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상태 해소에는 역부족인 수준임.

○ OPEC의 감산은 또한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기업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됨. 일부 기업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만 넘어도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됨.

— Donald Trump 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에너지 산업에의 규제 완화/폐지를 공언하고 있어 셰일오일 생산단가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며, 이는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으로 이어져 OPEC의 감산에 의한 유가상승 효과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음.

□ 국별여신한도 점검 등 당행 여신의 리스크 관리 강화

○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가시화되고 특히 중국의 석유소비가 증가하기 전에는 배럴당 60달러 이상 수준으로의 지속가능한 유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OPEC의 감산 합의로 내년 중 국제유가가 확실한 상승세를 유지해도 그 상승폭이 매우 크지 않는 한, GCC 회원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하향 조정의 압력에 노출될 전망임.

— 저성장과 쌍둥이 적자에 더하여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국채 발행의 증가로 회원국들의 부채비율 악화가 우려되며, 석유의존도 축소를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아직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당행 여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중심으로 GCC 회원국들의 국별 리스크 상시 점검 및 등급 조정 검토를 통해 당행 여신의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GCC 회원국들의 건설 프로젝트 발주 감소 및 발주조건 악화에 대응하여 우리 건설기업들 간의 협력 강화 필요

○ GCC 회원국들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도 산업다각화와 국민생활에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부문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분간 이들 국가들의 발주총액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임.

— 아울러 프로젝트 발주시에도 수주기업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과도한 수준의 발주가격 할인을 요구하여, 수주기업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현재 이란 정부가 외국기업들에게 요구하듯이, 수주기업들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금융 조달까지 직접 책임지게 하는 등 수주기업들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내세울 것으로 우려됨.

—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에서 재정자금 직접 투입의 비중을 계속 줄이는 반면, 외부 금융조달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의 프로젝트 추진이 모든 회원국들의 발주 프로젝트들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GCC 회원국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건설기업들의 핵심적인 해외시장으로, 발주규모 감소 및 발주조건 악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건설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해외 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율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고조됨.

□ 중동에 편중된 해외 건설시장의 다변화 필요

○ 유가 급락으로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의 중동 지역 수주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유가 동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여전히 편중된 해외수주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중동 지역의 해외건설 수주 점유율은 2012년 56.8%에서 2015년 35.8%까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건설기업들의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수주 점유율은 2015년 기준 각각 1.6% 및 9.8%에 불과하고 향후 성장잠재력도 높아, 동 지역들의 교통, 전력 등 기초 인프라 시장에의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6〉 2016. 1~10월 중 우리 건설기업들의 대 GCC 회원국별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기간 중 계약액			
	2014년	2015년	2015.1~10월	2016.1~10월
쿠웨이트	7,739	4,961	4,859	3,306
사우디아라비아	2,951	3,592	3,178	2,056
아랍에미리트	3,736	382	347	769
카타르	1,670	2,132	1,831	420
오 만	430	701	0.8	7
바레인	–	655	–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oki1122@koreaexim.go.kr